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 고찰 동화집 『행복의 동산』을 중심으로

양훈도(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북한의 동화는 ‘환상성’을 본질로 하는 아동문학 장르다. 북한의 아동들은 다른 문화권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무의식과 맞닿은 동화 속 ‘이야기 세계’를 접하면서 ‘인민’으로 성장해 나간다. 북한 동화는 체제의 사상과 이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정치적이지만, 바탕에는 체제 이념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 감정과 정서, 가치관 등의 기본 코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북한의 문화 코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이 연구는 1947~1980년 사이 북한에서 발표된 대표적 동화 28편을 수록한 동화집 『행복의 동산』의 ‘이야기세계’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동화의 기본코드와 그 함의를 고찰하였다.

『행복의 동산』 수록 작품들은 서사적 ‘목소리’의 지향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이야기세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의인화된 동식물의 눈으로 ‘조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유형, 둘째, 알레고리적 교훈을 주는 유형, 셋째, 전통 민담의 세계관을 계승한 유형, 넷째, ‘꿈 시공간’을 활용하는 유형이다. 각각의 ‘이야기세계’는 동식물에서 근대적 사물에 이르기까지 의인화된 다양한 존재들이 얹히고설키게 하여 아동 독자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 집단과 동무에 대한 사랑, 이상사회를 향한 의지 등을 심어주기 위한 서사적 장치다.

이 서사적 장치를 고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읽어낼 수 있었다. 첫째,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현실세계’와 밀접한 연관하에 전개되

어야 하는바, 이는 체제가 허용하는 상상력의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둘째,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그 안에 사는 존재들을 포용해야 할 존재와 배제해야 할 존재로 선명하게 구별한다. 즉 포용과 배제의 코드가 ‘이야기세계’의 기본적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야기세계’는 곧 ‘이상향’을 향한 도정이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때라야 동화적 행운이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주제어: 북한동화, 환상성, 스토리텔링, 이야기세계, ‘환상의 비정치성’, 아동문학, 서사

1. 들어가며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사 장르다. 아동들은 동화를 듣거나 읽으면서 자기 문화권의 서사 코드와 서사 관습을 익힌다. 동화는 아동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이며, 아동들이 일생에 걸쳐 자기 자신의 삶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된다.¹⁾ 북한에서도 동화는 아동이 ‘인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이야기 형식이다. 또한 북한 동화의 역할과 기능도 아동의 정체성 형성, 서사적 문해력의 체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의 이야기는 인물·사건·배경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들

1) 어린 시절 각인된 서사의 경험은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면서 허구적 서사와 경험의 서사를 혼성하는 기초가 된다.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이야기의 본질과 활용』(파주: 한울, 2011), 113~114쪽.

요소는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인물들이 얹히고설키며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은 배경이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경이 달라지면 인물과 사건의 의미도 달라진다. 배경은 그러므로 이야기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인이다. 또한 배경은 이야기의 첫머리에 제시되면서 독자를 현실세계에서 이야기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실을 한다. 서사연구자들이 서사 속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서사세계’, ‘스토리세계’ 등으로 부르며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²⁾

특히 동화 스토리에서는 배경이 인물·사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식물과 사물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요정이나 도깨비와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들이 등장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상사처럼 발생해도 괜찮은 이유는 동화의 배경 자체가 독특한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특한 동화의 세계는 꿈의 세계 혹은 원형적 무의식의 세계를 상기시킨다.

이 연구는 북한의 동화 작품 일부를 분석하여 그 ‘이야기세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이야기세계’는 동화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이자 무대로서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세계를 지칭한다. 굳이 ‘서사세계’, ‘스토리세계’라는 기존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서사, 내러티브, 스토리, 이야기, 스토리텔링 등 서사학 용어들이 학자마다 다른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복잡한 논의에 매달리기보다 일상용법적 술어를 사용하는 쪽이 오히려 생산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

2)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우찬제 외 옮김(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10), 305~332쪽.

3) 이 연구에서 스토리와 이야기는 동화 작품의 내용을 지칭하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서사는 주로 이야기(스토리)를 들려주는 방식을, 스토리텔링은 문자 그대로 ‘이야기 들려주기’, 즉 구연적(口演的) 성격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북한의 동화는 환상적 세계를 동화 장르 자체의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다. 2장에서 상술했겠지만, 북한의 동화 담론에서는 작품 속에서 체제의 사상과 이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인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환상적인 이야기의 세계를 펼침으로써 아동을 교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동화의 세계에서도 서구와 남한의 동화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꿈의 세계 혹은 원형적 무의식의 세계와 흡사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주체사실주의’를 문학예술의 창작원칙으로 삼는 북한체제에서 무의식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환상적 ‘이야기세계’는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이를 통해 체제가 허용하는 상상력의 한계를 가늠해볼 수 있고, 체제가 어린 ‘인민’의 의식과 무의식을 어떻게 장악하고자 하는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의 ‘이야기세계’ 속에 선/악, 미/추, 의/불의 등의 기본적 서사 코드가 구조화되는 방식과 작동 메커니즘도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이념과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가 함축하는 상상력과 무의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일은 방대한 작업이다. 게다가 이러한 각도에서 북한의 동화를 연구한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연구의 방향을 잡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동안 남한 학계에서 발표된 북한 아동문학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며, 그나마도 아동문학 일반을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다.⁴⁾ 동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몇 편 되지

사용하고자 한다.

4) 이 연구를 위해 검토한 북한 아동문학 관련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동수,

않는다. 이재철의 연구와 오영은·김영주의 연구 정도가 눈에 띄는 성과다.⁵⁾

이재철의 논문은 남과 북의 대표적 동화를 각각 37편씩 선정하여, 이들 작품의 내용(주제, 인물유형)과 형식(구성, 시점, 문체)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 동화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을 “통일 아동문학사를 위한 동질성 모색”에 두었기 때문에 북한 동화 자체의 심층 코드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영은·김영주의 연구는 남쪽 기준상 ‘전래동화’로 분류될 수 있는 남북한의 동화 274편(각각 137편)을 선정하여, 일반적 특성, 배경, 사회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배경 분석은 주인공의 대인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내용으로서, 본격적인 ‘이야기세계’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를 정밀하게 고찰하려면 그동안 발표된 작품들을 통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일부 북한 동화 작품의 ‘이야기세계’를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집(2005); 이영미,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0집(2006); 이재철, “북한아동문학연구: 그 총체적 접근을 위한 시론,” 『남북아동문학연구』(서울: 박이정, 2007); 선안나,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의 현황(1): 서정 및 서사 장르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15집(2008); 이영미, “1960년대 전반기 북한 문학 교육교양 매체 『아동문학』의 주제적 경향,” 『한민족문화연구』, 제23집(2010); 원종찬, “북한 아동문단 성립기의 ‘아동문화사 사건,’” 『동화와 번역』, 제20집(2010).

5) 이재철, “남북 동화문학 비교 연구-통: 아동문학사를 위한 동질성 모색,” 『남북 아동문학연구』; 오영은·김영주, “남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와 배경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1호(2007).

시론적으로 분석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택한 텍스트는 1947년부터 1970년대 말 사이에 발표된 작품 28편을 수록한 동화집 『행복의 동산』이다.⁶⁾ 『행복의 동산』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2008년 발간된 아동문학 이론서에서도 해당 시기의 성과작으로 꼽힌다.⁷⁾ 그러므로 이 연구는 분명 한계가 있지만,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가 갖는 특징과 함의의 주요한 측면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각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점적으로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동화는 어떤 ‘시공간’에서 펼쳐지는가.⁸⁾ 둘째,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떤 대상들이 의인화되며, 이른바 ‘환상적 형상’들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셋째,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에서 초자연적이고 마법적인 현상에 투사된 염원은 무엇인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2장에서 북한의 동화 담론의 위상을 검토한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북한 담론의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동화 담론에서 ‘환상성’이 허용되는 이유와 동화 스토리텔링의 목적을 먼저 검토해야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3장에서는 『행복의 동산』에 수록된 작품을 검토한 뒤, 각 작품의

6) 이들 작품은 강훈 외, 『행복의 동산: 조선아동문학문고 4』(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과 수록된 작품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세히 제시할 것이다.

7) 정룡진, 『아동문학: 주체문학전서 6』(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을 지칭한다.

8) 이때 ‘시공간’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개념인 ‘크로노토프(chronotope)’의 역어다.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은 “문학에서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관계와 공간관계의 본질적 연결성”으로 정의되며, “특별한 장르와 텍스트 유형에 독특한 것”으로서 아동문학 연구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조희숙 외 옮김(파주: 교문사, 2009), 176~183쪽.

‘이야기세계’를 유형별로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을 근거로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의 특징과 함의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2. 북한의 동화 담론

북한의 아동문학은 동요, 동시, 동화(동화와 우화), 아동소설, 아동극, 산문(수필, 논설)으로 나뉜다.⁹⁾ 북한의 문학담론에서 아동문학은 어른을 위한 문학과 다를 바 없는 문학이다. 다시 말해 아동문학 역시 문학 일반이 그러하듯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넓은 것’과 싸움을 벌이는 힘 있는 무기인 것이다. 아동문학은 근본적으로 낮은 문학도 아니요, 높은 문학으로 가는 징검다리도 아니다.¹⁰⁾ 다만 어린이의 시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세계를 그리는 문학일 따름이다. 이 장에서는

9) 이재철은 북한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동화와 우화를 동일한 수준에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자주적 인간을 향한 꿈과 소망을 다루면 동화, 풍자와 교훈적 내용을 담으면 우화로 분류한다. 우화는 주로 의인화 수법만 활용되며, 동화는 의인화와 환상수법이 모두 쓰인다. 양에 있어서도 동화는 상대적으로 길고, 우화는 짧다. 북한의 유일한 아동문학 잡지인 『아동문학』에 실리는 작품을 보면 동화로 분류된 것은 3~4쪽 이상에 걸쳐 있는 반면, 우화는 1~2쪽을 넘지 않는다. 또 산문 우화도 없지 않지만 우화는 대체로 운문의 형식이며, 동화는 산문 형식이다. 그러나 동화 가운데는 의인화 수법 이외에 환상수법이 뚜렷하지 않은 작품이 눈에 띄고, 양만 다소 길뿐 우화와 마찬가지로 풍자와 교훈의 목적만 드러나는 작품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갈래 구분에 대해 이재철 교수는 세계에서 드문 사례이며, “우화는 어디까지나 동화의 내질이자 하나의 하위 범주로 취급해야 될 성질의 것인데, 북한이 유례없이 이를 동화와 동일한 차원에 두었으니 우리의 장르 개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철, 『남북아동문학연구』, 172~173쪽.

10) 리원우, 『아동 문학 창작의 길』(평양: 국립출판사, 1956), 5~6쪽.

『문학예술사전』의 동화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리원우의 『아동 문학 창작의 길』(1956), 김정일의 『주체문학론』(1992), 정룡진의 『아동문학』(2008) 등 문학이론서에 실린 동화 담론을 검토한다.¹¹⁾ 개별 작품보다 당의 지침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북한 문학의 특성상 동화 담론 분석은 그 자체로 중요하며, 작품 분석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 동화의 본질 ‘환상성’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은 동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상수법이나 의인화의 수법으로 쓰인 아동문학의 한 형태. 동화는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주로 동식물을 의인화하거나 신기하고 기적적인 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반영하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고운 것과 미운 것에 대하여 인식시킴으로써 아동교양에 이바지한다. 동화에서 적용되는 환상의 기초에는 현실생활이 놓여 있으며 동화적 형상에는 아름답고 숭고한 것에 대한 리상이 반영된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주위세계와 생활을 인식시키고 진취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며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커다란 포부를 안겨주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¹²⁾

이 정의로부터 북한의 동화는 ‘환상수법’과 ‘의인화 수법’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북한 동화의 중요한 특성이 드러난

11) 위의 책;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정룡진, 『아동문학』.

12)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513쪽.

다. 남한에서는 의인화나 환상 또는 경이적인 요소가 없어도 아동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이야기를 통칭하여 ‘생활동화’라고 하며, 동화로 인정한다.¹³⁾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생활동화’는 아동소설로 분류되며, ‘동화’라고 불리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동화의 장르적 특성은 ‘환상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동화에서 ‘주체사실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환상적 ‘이야기세계’가 허용되는 근거는 아동들에게 “사상을 론리적으로 주입하려 하지 말고 흥미 있는 형상 속에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는 교시적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¹⁴⁾ 즉, 흥미유발에 목적이 있다. 이때 ‘흥미 있는 형상’이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형상을 뜻한다. “유년기와 소년기에는 사고와 행동이 민첩한 대신 추상적인 사고가 약하고, 섬세하고 엉뚱한 대신 시야가 좁은 특성을 가진다. 어린이라 하여도 유년기가 다르고 소년기가 다르다.”¹⁵⁾ 따라서 추상적이고 어려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년기와 소년기 아동들에게는 심리적 특성을 감안한 이야기가 제공되어야 하는바 동화는 바로 그에 적합한 대표적 형식에 해당한다.¹⁶⁾

『문학예술사전』의 정의에서 보듯이, “동화는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주로 동식물을 의인화하거나 신기하고 기적적인 형상

13)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한국 동화의 성립과정의 흔적이다.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과주: 창비, 2010), 27~54쪽 참조.

14) 김정일, 『주체문학론』, 255쪽.

15) 위의 책, 254쪽.

16) 물론 동화가 유년기와 소년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이야기 장르는 아니다. 이 시기 아동들을 위한 아동소설도 제공된다. 한편, 1993년부터는 동화의 하위 갈래로 유년동화, 아동소설의 하위 갈래로 유년소설이라는 장르를 새로이 설정했다. 잡지 『아동문학』은 1993년부터 ‘유년동화’와 ‘유년소설’이라는 표제 아래 작품들을 정기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을 통하"여야 하는바, 그 심리적 특성이란 바로 물활론적(物活論的) 사고를 의미한다. 자신을 둘러싼 만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애니머티즘(animatism)이나 정령(精靈)의 존재와 관여를 믿는 애니미즘(animism)이 물활론적 사고다. 원시적 심성의 유산이라고 간주되는 물활론적 사고는 근대문명권 사회에서도 대체로 10세 이하 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5~6세 된 아동은 모든 사물이 살아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인다. 그보다 조금 위인 8세까지는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지는 않으나, 움직이는 물체는 살아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해와 달, 구름과 바람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 10세 전후의 아동도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살아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¹⁷⁾ 이 같은 물활론적 사고는 원시적 심성의 유산으로서, 모든 이야기 형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춘기는 물론 성인들에게서도 물활론적 사고가 발견된다. 동화는 바로 이러한 물활론적 사고와 직결되는 이야기 장르이며,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물활론의 세계에 다름 아니다.

물활론적 '이야기세계'의 기원은 설화(신화, 전설, 민담)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 근대의 서사 장르인 동화는 구비전승 이야기 가운데 아동들에게 들려주어도 괜찮다고 판단한 각편(各片)을 채록, 변개하는 과정에서 정착되었다.¹⁸⁾ 한반도에서도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구비설화를 수집하여 전래동화라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

17) 김명희, “한국 동화의 환상성 연구: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7쪽.

18) 서양 동화의 역사는 잭 자이프스, 『동화의 정체: 문명화의 도구인가 전복의 상상인가』, 김정아 옮김(파주: 문학동네, 2008) 참조.

었다.¹⁹⁾ 이 전통으로 인해 해방 후 남한의 아동문학 담론에서는 이처럼 구전설화에 바탕을 둔 전래동화와 작가들의 작품인 창작동화를 구분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환상성이 없는 이야기, 즉 의인화 수법과 환상 수법이 발휘되지 않은 이야기는 동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를 구분하는 일도 없다. 물론 북한의 동화에도 창작자가 명기된다. 그러나 이들 창작자는 ‘당-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이들에게 구비설화(북한식 표현으로는 ‘구전설화’)의 모티프를 차용하느냐, 새로운 ‘환상성’을 창조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동들의 흥미를 끌어내어 감동을 주고 사상적으로 잘 교양할 수 있느냐가 창작의 관건이다.

이 밖에 북한 동화의 환상적 ‘이야기세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이솝우화’와 소련 동화의 영향을 들 수 있을 듯하다. 개화기부터 소개된 ‘이솝우화’는 교과서에 실린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동화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²¹⁾ 일제 강점기를 거친 ‘이솝우화’식 의인법과 스토리텔링은 북한의 동화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해방 후 북한 동화는 구전문학의 전통과 ‘이솝우화’의 영향, 해방 후 소련 동화의 자극 등을 수용하여 북한 동화 특유의 ‘이야기세

19)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서울: 소명출판, 2009), 155~180쪽.

20) ‘당-작가’는 연구자의 조어다. 북한의 작가는 철저히 당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개성 있는 작품 창조’라는 이중 구속을 받는다. 그러므로 작품은 원칙적으로 당의 것이지만 작가의 몫도 분명 존재한다. ‘당-작가’라는 용어는 당의 통제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살리려는 작가들의 고민을 내포한다.

21) 박혜숙, “개화기 교과서의 이솝우화와 한국 동화의 성립과정,” 박혜숙 외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동화의 형성과 구조: 한국에서 창작동화가 성립되기까지』(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41~60쪽.

계’를 확충해 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화 스토리텔링의 목적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동화란 아동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에 내장된 가치관과 세계관, 이상적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서사적 시도다. 어린 독자들은 동화의 ‘이야기세계’ 속으로 들어가 선/악, 의/불의, 미/추의 코드를 익히고, 이야기 플롯을 따라 가면서 욕망 조절의 방식과 감정 및 정서의 굴곡을 경험하며, 자기 문화권의 가치관을 배운다. 시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동화의 목적성이 드러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목적성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이야기는 상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보편성을 전제로 북한 동화 담론의 목적성을 좀 더 살펴보자.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 가운데서 동화만이 유일하게 이념성과 사상성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장르라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남한에서 북한 동화 연구를 개척한 이재철은 바로 이 점을 가리켜 “환상의 비정치성”이라고 지적했다.²²⁾ 이 표현은 북한 동화가 사상이나 이념의 선전매체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환상 속에 담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남쪽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북한 동화야말로 이념성 강한 다른 서사 장르와는 다르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는 함의가 이 표현에 담겨 있다. 이는 매우 적절하면서도 유용한 통찰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자가 볼 때 북한 동화의 환상성은 분명히 뚜렷한 목적

22) 이재철, “북한아동문학연구,” 192쪽.

성을 깔고 있다. 이는 동화의 정의에서부터 다시금 확인된다. “동식물을 의인화하거나 신기하고 기적적인 형상”이 제시되는 이유는 “생활을 반영하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고운 것과 미운 것에 대하여 인식시킴으로써 아동교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따라서 “환상의 기초에는 현실생활이 …… 동화적 형상에는 아름답고 숭고한 것에 대한 리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주위세계와 생활을 인식시키고 진취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며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커다란 포부를 안겨주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아동문학 담론에서도 되풀이해 강조된다. 우선 “기이한 여러 가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일정한 사상에 공감되어 교양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현실적인 화폭의 바탕에 인간 생활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²³⁾ 동화의 중요성은 “주체의 인간학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며 “후대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에서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²⁴⁾ 또한 “환상이 사람들에게 인간과 생활의 본질을 옳게 리해시키는 수단으로 되자면 그것이 노동계급의 리익의 견지에서 쓰이는 경우에라야만 가능하다.”²⁵⁾

그런 의미에서 동화는 아동들을 ‘인민’으로 호명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명백한 이야기 장치다. 어린 독자들은 여느 문화권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동화의 ‘이야기세계’ 속으로 들어가 선/악, 의/불의, 미/추의 코드를 익히고, 이야기 플롯을 따라 가면서 욕망 조절의 방식과 감정 및 정서의 굴곡을 경험하며, 체제의 가치관을 배운다. 더욱이 이 경험

23) 정룡진, 『아동문학』, 63쪽.

24) 위의 책, 64쪽.

25) 위의 책, 70쪽.

은 아동들이 이후 일생에 걸쳐 받게 되는 교육과 사상교양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흥미·감동·교양이라는 세 요소 모두와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제1요소다. 동화의 주 독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5~10세 아동들은 물할론적 사고가 가장 강하므로, 동화의 ‘이야기세계’로 깊이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동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감동적으로 각인될수록 집단적 가치와 행위규범은 깊이 내면화된다. 또한 같은 동화를 듣고 자라는 교육 환경으로 인해 아동들 사이에 감정과 정서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3. 『행복의 동산』 ‘이야기세계’ 분석

1) 수록작품 검토

이 연구에서 텍스트로 택한 『행복의 동산』은 전 10권으로 간행된 <조선아동문학문고>의 넷째 권이며, 동화 작품 모음집으로는 첫째 권에 해당한다. 이 동화집은 1981년 시점에서 그동안 발표된 동화가운데 북한 아동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 28편을 골라 편집했다. 각 작품의 제목 아래에는 작가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작품 말미에는 발표연도가 표시된 작품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작품도 있다.

강훈의 “지지와 배배”, 리원우의 “작아지지 않는 연필”, 역시 리원우 작인 “큰 고간 속에 생긴 일”, 세 작품은 1947년 작이다. 이어 1954

년 작으로 표시된 김찬홍의 “미군비행사와 그의 세균부대”와 김도빈 작 “제일 큰 힘”이 차례로 실렸다. 이어 수록된 작품은 강효순의 “행복의 열쇠”인데 이는 1955년 작이라 되어 있고, 그다음 리원우의 “청동항아리”는 이보다 1년 앞선 1954년 작으로 표기되었다. 그다음에 수록된 강효순 작 “빨난 너구리”는 다시 1955년 작이며, 이어 박인범 작 “빨간 구두”는 1956년 작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강효순의 “너구리네 새집”은 1954년 작이다. 또한 다음 작품인 황민의 “기러기”는 연대 표시가 없고, 그다음 김용권의 “열두 번 뜨는 해”는 1961년, 리동섭의 “제일 큰 나팔”은 1962년 작이라 되어 있다. 연도순 배열인 듯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섞여 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열네 번째 작품인 차용구 작 “겉과 속”부터는 연도 표시가 없다는 점이다. 왜 연도를 표기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아동문학문고> 가운데 『행복의 동산』에 이어 두 번째로 편찬된 동화집이자 전체로는 9권에 해당하는 『불꽃훈장』, 동화와 우화를 모아놓은 10권 『웃음의 동산』은 모든 수록작품이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연도가 명기되어 있다.²⁶⁾ 『불꽃훈장』의 경우 첫 번째 작품 리성철의 “수닭한테 주었던 《요》자”는 1971년이며, 두 번째 작품 전종섭의 “달미의 그림”은 1980년이다. 이하 작품은 거의 연도별로 1~2작품씩 수록되었다. 이 점으로 미루어 『행복의 동산』의 “겉과 속”부터 마지막 수록작 최낙서의 “개구리박사의 여행”까지 발표연도가 없는 작품들은 1964년에서 1980년 사이에 발표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도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리성철 외, 『불꽃훈장: 조선아동문학문고 9』(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황령아 외, 『웃음의 동산: 조선아동문학문고 10』(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이러한 추정의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잡지 『아동문학』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잡지의 지령 400호 특집인 1988년 8호에는 “당의 해빛 아래 꽃피는 아동문학: 잡지 『아동문학』 400호를 내면서”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는 해방 이후 북한 아동문학의 대표적 성과작을 연대별로 꼽고 있는데, 1972년 이후 성과작으로 『행복의 동산』 수록작 일부를 거론하고 있다.²⁷⁾ 예를 들어 연도를 밝히지 않은 『행복의 동산』 열여섯 번째 작품인 김신복의 “이상한 《귀속말》”, 열아홉 번째인 배풍의 “귀가 큰 토끼”, 스물한 번째인 김우경의 “물방울”, 스물네 번째인 김재원의 “파도왕의 편지”, 스물다섯 번째인 허원길의 “딱따구리의 빨간 모자”가 그에 해당한다.²⁸⁾

『행복의 동산』에 수록된 동화 28편을 1945~1980년 사이 북한 동화의 대표작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명의 작가가 쓴 작품 여러 편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론된 작가는 모두 18명인데, 이들 18인은 북한 아동문학계에서 중요 작가로 꼽히는 인

27) “당의 해빛 아래 꽃피는 아동문학: 잡지 『아동문학』 400호를 내면서,” 『아동문학』, 8호(1988), 8~9쪽.

28) 잡지 기사에서 1972년 1월 24일 이후 성과작으로 꼽은 동화는 모두 10편이다. 1972년 1월 24일이 기점이 되는 이유는 김일성 주석이 동화, 우화 창작에 관련된 강령적인 교시를 내린 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품의 발표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이유를 이로부터 추론해볼 수도 있다. 교시와 무관하게 창작된 작품이지만, 그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발표시점을 명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어쨌든 제시된 10편 가운데 『행복의 동산』에 실리지 않은 나머지 5편은 양이 많은 중편이거나, 1981년 『행복의 동산』이 출판된 이후 발표된 동화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행복의 동산』이 편집되던 시점과 1988년 시점 사이에 성과작을 가리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은 듯하다. 한편, 『행복의 동산』에는 허원길의 “딱따구리의 빨간 모자”로 되어 있으나, 지령 400호 기사에는 “빨간 모자를 쓴 딱따구리”로 되어 있다. 다른 작품인지, 기록자의 착오인지, 의도적으로 제목을 바꾼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표 1> 『행복의 동산』 수록 동화 작품

제목	저자	발표	줄거리
지지와 배배	강 훈	1947	제비부부의 눈에 비친 해방 후 남북 대비. 이상향으로 변해가는 북한.
작아지지 않는 연필	리원우	1947	물건을 아낄 줄 모르는 소년의 꿈에 꼬마연필과 학용품들이 악몽처럼 나타남.
큰 고간 속에 생긴 일	리원우	1947	‘봄바람’이 북한의 고간(창고)이 엄청나게 자라나는 과정을 목격.
미군비행사와 그의 세균부대	김찬홍	1954	사람만큼 커진 세균과 곤충들이 세균탄을 떨어뜨린 미군비행사를 공격.
제일 큰 힘	김도빈	1954	두 새끼다람쥐가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을 찾아 나섰다가 북조선의 활력에 경탄하며 이 힘을 창조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음.
행복의 열쇠	강효순	1955	삼형제가 도전과 모험 끝에 적들에게 빼앗긴 행복의 열쇠를 되찾고 고향을 이상향으로 바꾸어 나감.
청동항아리	리원우	1954	착한 머슴이 화수분 같은 보물항아리 덕에 어머니 병을 고쳤으나 욕심꾸러기 지주에게 빼앗겼다가 이 항아리에서 머슴군들이 나와 지주를 징벌하고 행복을 되찾음.
빨난 너구리	강효순	1955	남의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너구리가 시슴뿔, 토끼의 귀 등을 얻어 ‘괴물’로 변함. 쫓겨났던 너구리는 제 모습을 되찾고서야 다시 받아들여짐.
빨간 구두	박인범	1956	구두 왼쪽과 바른쪽이 서로 잘났다고 다투다가 한 쪽이 우연히 마루 밑에 처박혀 헤어지게 되고 나서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음.
너구리네 새집	강효순	1954	자기 집을 지을 줄 모르는 너구리가족의 막둥이가 스스로 굴을 파는 고된 노동 끝에 집을 얻고, 멋진 손발도 갖게 됨.
기러기	황민	60년대	기진한 동무 기러기를 업고 가던 어린 기러기가 역시 탈진하여 둘이 함께 추락했으나 기적적으로 땅에 떨어져 살아남.
열두 번 뜨는 해	김용권	1961	하루에 해가 열두 번 뜨는 우주 질서의 혼란현상을 추적해보니 공장과 협동벌에서 천리마처럼 내달리기 때문에 밝혀짐.

제일 큰 나팔	리동섭	1962	몸집이 가장 크다고 우쭐거리던 튜바가 뛰어나 보이기 위해 제멋대로 소리를 냄으로써 연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야 악대가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
결과 속	차용구	60, 70년대	참나무버섯이 길으로 화려한 버섯들이 부러워 병까지 얻었으나, 다양한 버섯들이 한자리에 모여 좋은 버섯의 존재가치를 일깨워주고, 고슴도치가 나타나 화려한 독버섯들의 추악함을 폭로함.
되돌아온 오리	배풍	상동	새끼 오리 두 마리가 놀이에 팔려 가출했다가 되돌아와 더 어린 오리들 사이에서 공부하면서 벌어지는 소동. 결국 제 목소리와 춤을 되찾음.
이상한 《귀속말》	김신복	상동	자기 머릿속 귀속말이 시키는 대로 자기합리화와 공명심에 끌리던 소년이 동무들의 도움으로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귀속말을 내쫓아 버림.
푸른 궁전의 선물	최낙서	상동	두 친구가 가을날 유실수 나라에 초대되어 갔다가 봄에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꾼 소년은 과일나무에 열린 학용품과 과자 공신포 등 푸짐한 선물을 받고 돌아오고, 게으름을 피웠던 친구는 초라한 선물을 받고 돌아옴.
과란집 동무들	김우경	상동	여러 건설의 현장으로 달려가려는 우체통 속 편지들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는 어린 소년의 수취인 불명 편지 사연에 가슴아파함.
귀가 큰 토끼	배 풍	상동	호박만한 감자농사를 짓겠다던 토끼가 남의 말에 혹해 물고기잡이-달리기-산삼캐기에 나섰다가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함.
메토끼의 나팔주둥이	김신복	상동	제 분공은 소홀히 하면서 성과는 모두 자신의 것인 양 떠벌리고 다니던 메토끼가 친구들이 짜고 그의 입이 나팔처럼 변해 추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람에 공포에 휩싸였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됨.
물방울	김우경	상동	구름 나라 작은 물방울이 큰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앞서 제 혼자 우쭐대다가 여러 가지 곤경을 당하고, 여러 물방울들과 힘을 합해 큰 배를 밀어나가는 물이 됨.

떠돌아다니던 물음표	허원길	상동	모든 일을 회의적으로만 보던 물음표가 놀라운 속도로 진군하는 현실에 결국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전신을 두드려 펴는 수술을 받고 느낌표로 변함.
어린 갈매기	마운룡	상동	어린 갈매기가 수평선 너머 이상향이 그리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날아가게 됨.
파도왕의 편지	김재원	상동	파도들의 왕이 천리마나라의 간척지 현장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하여 무너뜨리고자 힘을 쓰다가 실패하고, 간척지 ‘황금파도’에게 화해의 편지를 보냄.
딱따구리의 빨간 모자	허원길	상동	푸른 숲 의사인 딱따구리(까막더구리)가 현실 만족에 빠져 자신들의 표식인 빨간 모자를 잃어버리고, 이를 훔친 까마귀는 꾀꼬리알과 다른 새의 새끼를 납치함. 범인으로 몰렸던 딱따구리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누명을 벗고 반성하게 됨.
다람쥐네 고간	원도홍	상동	다람쥐는 1년 365일 계획성 있게 먹이를 모으고 저장하여 추운 겨울을 넘기지만, 닥치는 대로 사는 꿈은 낭패를 겪게 됨.
바다고슴도치	김신복	상동	포식자들에게 시달리던 작은 바다메기들이 바다세상을 돌면서 포식자들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 해매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몸을 합쳐 뭉치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식자 망썰이를 물리침.
개구리박사의 려행	최낙서	상동	적도 나라 기상대 박사들인 개구리들이 기상이변을 모른다는 천리마나라를 찾아 와 그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뜨거운 심장 때문임’을 깨닫고 돌아감.

물들이다.²⁹⁾ 둘째, 북의 관행상 문학선집류에 수록된 작품은 대체로 선택 시점에서 고른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작가동맹에서 공식적으로

29) 남쪽 연구자 이재철은 자신이 북한, 중국 연변, 러시아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정리하여 북한의 아동문학가 명단과 이력을 추적하였다. 이재철, “북한아동문학연구,” 235~245쪽.

대표작이라 인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미 언급하였듯이 『행복의 동산』 수록 작품 가운데 여러 작품이 잡지 『아동문학』 특집 등에서 대표적 성과로 거론되거나, 아동문학 이론서인 정성룡의 『아동문학』 등에서 우수한 작품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의 동산』 수록작의 ‘이야기세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수록작의 작가, 발표연도, 주제(종자)를 중심으로 요약한 줄거리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이 표에서 발표연도 미기제작은 편의상 일단 모두 ‘60, 70년대’로 표시하였다.

2) ‘이야기세계’의 유형

북한의 동화는 모두 경어체로 되어 있다. 동화는 반드시 경어체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으나 동화 장르의 서사 관행으로 굳어진 듯하다. 경어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서사학적 개념을 적용하면 ‘목소리(voice)’에 해당한다. 서사학에서 ‘목소리’는 “묵독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서사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감수성”으로 정의된다.³⁰⁾

북한 동화의 경어체 ‘목소리’는 또한 ‘초점자(focalizer)’이기도 하다. 서사학에서 ‘초점자’는 “이야기 속 사건들과 사물들을 본다고 생각하는 감수성”이다. 북한 동화의 ‘목소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것을 보며, 아동 독자는 ‘목소리’가 들려주는 사건과 사물만을 본다. 즉, 동화의 화자는 ‘이야기세계’의 가이드로서, 독자가 듣고 싶어 한다고 화자 자신이 판단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독자가 보고 싶어 한다고 화자

30) 애벗, 『서사학 강의』, 449쪽.

자신이 판단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서사 경험이 적은 아동 독자는 가이드의 ‘목소리’ 너머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세계’의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동화의 특성에 착안하여 ‘이야기세계’의 유형 분류 기준을 ‘목소리가 안내하려는 세계’로 삼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아동이 동화를 읽으려고 책을 펼치는 순간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동을 어떤 세계로 데려가려고 하는가에 따라 ‘이야기세계’를 유형화 하려는 것이다.³¹⁾ 이 기준에 따르면 『행복의 동산』 ‘이야기세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인화된 ‘동식물’³²⁾의 눈으로 동시대 인간세계 ‘조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여기서 동시대란 동화가 발표된 시점을 말한다. “지지와 배배”, “큰 고간 속에 생긴 일”, “제일 큰 힘”, “열두 번 뜨는 해”, “파도왕의 편지”, “개구리박사의 여행” 6편이 이 유형이다.³³⁾ 둘째, 의인화된 ‘동식물’의 ‘이야기세계’로 안내하여 알레고리(allegory)적 교훈을 주는 유형이 있다. 이 유형에서는 첫째 유형과 달리 인간세계가 등장하지 않고, ‘동식물’의 ‘이야기세계’만 펼쳐진다. “빨난 너구리”, “빨간 구두”, “너구리네 새집”, “기러기”, “겉과 속”, “떠돌아다니던 물음표” 등 모두 16편이 이 유형이다.

31) 엄밀하게 말해 이는 유형 분류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북한 동화가 목격의식적으로 제공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상정 가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2) 의인화의 대상은 동식물만이 아니다. 모든 사상(事象)이 의인화될 수 있다. 단지 편의상 이하에서는 ‘동식물’이라고 표기한다.

33) “떠돌아다니던 물음표”의 경우 물음표 ‘기웃머리’가 곳곳에서 활력 넘치는 발전상을 목격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웃머리’가 겪는 일들은 그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이야기세계’는 둘째 유형으로 분류한다.

셋째, 전통 민담의 모험담 형식을 띤 유형이다. 이 세계는 한반도에 서 누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옛이야기’의 세계다. 사실 어느 작품이든 전통 민담의 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형의 동화는 형식의 측면에서나 ‘이야기세계’의 측면에서나 ‘구전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남쪽의 기준으로는 ‘전래동화’로 분류될 이 유형에는 “행복의 열쇠”, “청동항아리” 2편이 해당된다. 넷째, 꿈의 세계 혹은 꿈과 비슷한 기이한 경험의 ‘이야기세계’로 인도해가는 유형이다. “작아지지 않는 연필”, “미군비행사와 그의 세균부대”, “이상한 《귀속말》”, “푸른 궁전의 비밀” 이 4편이 이에 해당한다.

각 유형의 ‘이야기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째 유형 즉 의인화된 ‘동식물’의 눈으로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유형인 “제일 큰 힘”은 어린 다람쥐 ‘금급이’와 ‘작작이’가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가장 힘센 존재를 찾아나서는 설정이다. 이들은 범-땡(총)-기증기-기차-공장을 차례로 찾아간다. 마침내 이들은 공장보다 더 큰 힘을 발견한다.

저길 바라. 옷에 기름 묻은 사람들이 기계를 운전하고 있구나. 확실하 그렇지? 금급아, 힘센 것이 무엇인지 차차 알려지는 것 같구나. 기차도 트랙또르도 기증기도 다른 기계도 죄다 사람들이 운전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던 말이야. 얼마나 굉장한 힘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란 말이야.³⁴⁾

“열두 번 뜨는 해”도 해가 하루에 열두 번이나 뜨는 이유를 캐는

34) 김도빈, “제일 큰 힘,” 『행복의 동산』, 52~53쪽.

연쇄담의 형식이다. ‘우주할아버지’의 말손자 해(태양)가 하루 열두 번 뜬 이유를 알고 보니 알락수닭이 열두 번 울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종달새-새별아가-협동벌 무쇠소(트랙터)-무쇠나귀(자동차)-무쇠말(기관차)-공장과 협동벌을 만난다. 결국 ‘맑은 아침의 나라 기적의 천리마’가 그 원인임이 밝혀진다.

“개구리박사의 여행”은 적도 지방에 있는 ‘국제청개구리기상대’가 어느 날 ‘천리마나라 기계네부대 통통이대장’으로부터 자신들은 기상이변을 모른다는 편지를 받는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개구리 박사들이 ‘라후레시아꽃수레’를 타고 서풍에 실려 천리마나라로 간다. 도착한 이들은 나라 곳곳을 돌며 기상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 즉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뜨거운 심장”을 발견한다.³⁵⁾

둘째 유형, 즉 ‘동식물’ 세계를 통해 인간세계의 문제를 알레고리수법으로 보여주는 유형은 『행복의 동산』에서 가장 많이 쓰인 ‘이야기세계’다. 1955년 작인 “빨난 너구리”를 보자. 동화의 ‘목소리’가 소개하는 너구리는 남의 것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캐릭터다. 너구리를 위해 시슴들은 뿔을 조금씩 잘라 만든 뿔을 선물하고, 토끼는 귀를 조금씩 잘라 큰 귀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여 받은 신체부위들로 치장한 너구리는 매우 만족하지만, 동물들의 잔치판에서 ‘괴물’이라고 쫓겨난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너구리가 제 모습을 되찾고 나서야 잔치판에 받아들여진다.

이 유형에서는 인간세계는 ‘동식물’의 세계로 평행이동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이야기세계’에서도 현실세계의 인과관계나 자연법

35) 최낙서, “개구리박사의 여행,” 『행복의 동산』, 365쪽.

칙에 구애받지 않는 환상적 현상들이 발생한다. “너구리네 새집”에서 게으름뱅이 너구리네 가족 중에 막동너구리만 자주적이고 부지런하다. 다른 가족은 오소리네 집에 얹혀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막동너구리는 자신의 힘으로 제 집을 파기로 한다. 결국 막동너구리는 열심히 굴을 파기 때문에 집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땅 파는 일을 하기 좋은 멋진 손을 갖게 된다. “떠돌아다니던 물음표”에서 물음표 ‘기웃머리’는 매사에 회의적이었다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온몸을 고쳐 느낌표가 된다.

이 유형의 동화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겉과 속”에서는 버섯 세계를 다룸으로써 누가 참으로 가치 있는 ‘우리’의 일원이고, 누가 ‘우리’ 속에 위장 잠입한 ‘적’인가를 가려낸다. 이 ‘이야기세계’의 주인공 ‘참나무버섯’은 이로운 버섯들의 개성 있는 외양보다 화려하게 생긴 독버섯들을 선망하지만 이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바다고슴도치”에서는 작고 약한 바다생물인 바다메기들이 한테 뭉쳐 꼬리지느러미를 무기처럼 사용하면 포식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기러기”에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기러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셋째 유형인 “행복의 열쇠”는 서두부터 민담의 형식을 띤다. “옛날 굴룡산 밑에 새벽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도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일했으나 무척 어려운 살림이었습니다.”³⁶⁾ “옛날 옛날에”로 시작되는 전형적인 민담의 ‘목소리’다. 새벽골 사람들은 ‘행복의 굴’이 있어 화목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으나, 바다 건너 도적들이 쳐들어와 굴을 폐쇄하고 열쇠를 빼앗아

36) 강효순, “행복의 열쇠,” 『행복의 동산』, 55쪽.

가 버렸다. 마을의 좌장인 ‘박로인’은 자신의 아들 삼형제(금이, 은이, 옥이)의 재주를 시험한 후 열쇠를 되찾으라고 보낸다. 이들은 구렁이에게 새끼가 잡아먹힐 뻔한 학을 구해주어 학의 도움을 받고, 산골에 숨어 사는 농사꾼, 석수장이, 대장장이를 만나 신물(神物)을 받음으로써 결국 그 도움으로 도적을 물리치고 열쇠를 되찾아온다. ‘행복의 굴’을 열자 수천 권의 그림책이 있고, 그림책을 펼치자 자신들의 마을이 곧 그림 속의 낙원으로 변한다.

“청동 향아리”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머슴 총각(‘하나둥이’), 화수분처럼 넣어둔 음식을 꺼내 먹어도 먹어도 끝없이 나오는 청동향아리, 욕심쟁이 지주, 청동향아리를 탈취한 지주를 징치하려고 청동향아리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둥이’와 똑같은 머슴들 등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들이 ‘이야기세계’를 이루고 있다.

넷째 유형은 꿈의 세계 혹은 꿈과 같은 기이한 경험의 ‘이야기세계’ 유형이다. 꿈의 세계를 활용한 작품은 “작아지지 않는 연필” 1편이고, 꿈과 같은 기이한 경험의 세계는 “미군비행사와 그의 세균부대” “이상한 《귀속말》” “푸른 궁전의 선물” 3편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세계’에서는 전아-응축-변형 등 프로이트적 꿈의 설명방식과 흡사한 환상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아지지 않는 연필”에서 주인공 ‘용이’는 학용품들을 함부로 낭비하는 어린이이다. ‘용이’는 꿈속에서 자신이 버린 ‘꼬마연필’이 합체되어 거인처럼 자신을 압박하고, 다른 학용품들도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꿈을 꾸다. “미군비행사와 그의 세균부대”에서 미군조종사 ‘아놀트’는 자신이 투하한 세균폭탄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되어 기형적으로 성장한 곤충들과 세균들에 의해 복수를 당한다. “이상한 《귀속말》”의 ‘순찬이’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귀속말’의 소리를 따라 자

신을 합리화하고 피를 부리다가 학급 친구들의 호된 비판을 받고서야 자기 머릿속의 ‘귀속말’을 겨우 떨쳐버린다. “푸른 궁전의 선물”에서는 자신들이 봄에 심었던 유실수들의 초대를 받아 간 소년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나무에 열린 푸짐한 각종 공산품으로 보상을 받고 돌아온다.

4. 『행복의 동산』 ‘이야기세계’의 특징과 함의

1) 현실에서 멀지 않은 세계

동화를 읽으려고 책을 펼치는 순간 아동은 현실을 떠나 동화의 세계로 들어선다. 동화 읽기를 마칠 때까지 아동은 현실에서 ‘격리’되어 이야기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와 다르면 다를수록 ‘격리’ 또는 ‘이동’이라는 느낌은 비례해서 커진다. 동화는 그런 점에서 가장 입문의례적 성격이 강한 서사 장르다. 왜냐하면 모든 문학예술이 현실에서 예술의 세계로 ‘이동’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화는 아동에게 처음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서사이기 때문이다. 동화 속으로 ‘이동’하는 아동은 동화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정체성과 가치관, 정서와 감정을 배운다. 그 가이드는 앞 장에서 살폈듯이 스토리텔러의 ‘목소리’다.

이 같은 상징적 ‘크로노토프 이동’의 형태는 앞 장에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형에서 ‘여행’은 의인화된 ‘동식물’의 시선을 따라 역동적인 발전의 현장을 찾아가는 ‘시선 이동의 여행’이다. “지지와 배배”에서 아동 독자는 제비 부부의

시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남한과 북조선의 현실을 대조적으로 경험한다. 남한은 해방이 되었어도 착취와 수탈이 여전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다. 반면 지지와 배배가 마침내 도달한 북조선은 남녘과 정반대되는 이상향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큰 고간 속에서 생긴 일”의 ‘이야기세계’에 들어선 아동 독자는 ‘봄바람’의 시선을 따라 북조선 전체가 엄청나게 큰 고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시선 이동의 여행’은 “열두 번 뜨는 해”에서처럼 우주적 수준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과도왕의 편지”에서처럼 대양의 힘마저 굴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개구리박사의 여행”에서는 저 멀리 적도지방의 기상전문가들이 ‘천리마나라’까지 찾아와 계절의 순환과 기상이변마저 의지로 다스리는 현장을 목격한다.

두 번째 유형의 ‘이동’은 ‘동식물’과 소통하는 시공간으로의 ‘이동’이다.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고 싶어 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싶어 하며, 동물과 대화하려는 초월 욕구를 갖는다. 아동은 이 초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³⁷⁾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그 초월의 세계로 아동 독자를 데려가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는 삼라만상이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갖추고 있다. 이들이 인간처럼 대화하고 행동하는 과정 자체가 아동 독자에게는 동물과의 소통의 ‘시공간’이 된다.

세 번째 유형의 ‘이동’은 낯익은 옛이야기 속으로의 ‘여행’이다. “행복의 열쇠”의 ‘이야기세계’나 “청동 향아리”의 ‘이야기세계’는 민담의 ‘이야기세계’ 그 자체와 매우 유사하기에 아동 독자들을 쉽게 흡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 작품이 발표된 것이 1950년대 중반이

37) 김명희, “한국 동화의 환상성 연구,” 41쪽.

라는 시점을 감안하면, 당시 아동들은 조부모 세대로부터 들은 옛이야기의 새 버전이라고 할 이 유형의 ‘이야기세계’와 친숙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의 열쇠”는 민담 가운데서도 전형적인 모험담이다. ‘행복의 열쇠’를 찾아 나선 삼형제가 겪는 고난과 실패, 최종적인 성공은 진부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청동항아리”의 경우도 항아리에 음식을 담으면 끊임없이 음식이 솟아나고, 심술궂고 욕심 많은 지주를 징치하기 위해 항아리에서 머슴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세계’의 재연일 따름이다.

아동들은 이렇듯 친숙한 ‘이야기세계’에 싫증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마리아 니콜라예바가 지적하듯이, “전통적인 어린이책의 매력은 예측 가능성, 즉 ‘알아보는 기쁨’에 있다. 전래동화와 고전들이 어린이의 독서에서 차지하는 결정적인 역할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³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의 ‘이야기세계’는 아동을 ‘꿈의 크로노토프’로 데리고 간다. 실제로 “작아지지 않는 연필”은 꿈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군비행사와 그의 세균부대”에서 기형적으로 커지는 곤충과 세균들은 꿈의 변형 작업에 상응한다.³⁹⁾ “이상한 《귀속말》”의 ‘귀속말’은 내면의 페르소나가 인격화되는 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8) 마리아 니콜라예바, 『용의 아이들: 아동 문학 이론의 새로운 지평』, 김서정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88쪽. 니콜라예바는 아동문학의 이러한 측면에 착안하여 아동문학은 ‘규범적 문학’이라고 지적한다. ‘규범적 문학’은 한 번 접하고 마는 세계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첫 글자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빼놓지 않고 되풀이해 들어도 싫증을 내지 않는 문학이다.

39) 이 같은 변형이 가능한 것은 이 작품이 『행복의 동산』에 실린 28편 가운데 유일하게 증오의 ‘이야기세계’를 다루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는 교육담론에서조차 ‘원수’에 대한 욕설과 잔인한 복수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권장하기까지 한다.

“푸른 궁전의 선물”에 등장하는, 각종 공산품이 열리는 나무 역시 유토피아적 꿈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환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행복의 동산』 ‘이야기세계로의 여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급적 현실과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세계를 동화적 세계로 상정하는 서구적 관점과 구별되는 북한 동화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동화에서 그려지는 이야기세계는 설령 현실의 변형 태일지라도 현실과는 다른 어떤 세계로 제시된다. 그래야만 동화적 환상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현실과의 연계성을 숨기지 않는다.

예컨대 첫째 유형에서 어린 독자는 ‘시선 이동의 여행’으로 초대되지만 결국 목격하는 것은 ‘조국의 현실’이다. 둘째 유형인 ‘초월적 소통의 여행’은 일견 현실과 전혀 다른 동식물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이 ‘평행이동’한 세계에 불과하다. 그 안에서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갈등하는 동식물들은 현실의 대칭적 대응물이라는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는다. 우화적 알레고리 서사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유형인 ‘민담세계로의 여행’ 역시 옛이야기에 가탁한 알레고리라는 것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다. 『행복의 동산』에 수록된 두 작품은 수많은 민담의 세계 가운데서 현실 알레고리에 적합한 대표적인 것을 골라낸 데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꿈의 크로노토프’인 넷째 유형 역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하여서만 ‘여행’이 허용된다.

‘이야기세계’가 ‘현실세계’와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체제가 허용하는 상상력의 한계를 짐작케 한다. “신기하고 기적적인 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반영하면서”라든가 “동화에서

적용되는 환상의 기초에는 현실생활이 놓여있으며”라는 『문학예술사전』의 동화의 정의는 바로 그 한계에 대한 규정인 것이다.⁴⁰⁾ 이는 북한체제가 허용하는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역으로 ‘현실’과의 연관성만 확보된다면 다양한 층위의 상상력이 작동될 수 있다는 함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작품의 종자를 살릴 수 있다면 다양한 의인화와 환상수법이 가능하므로 ‘당-작가’의 상상력이 풍부하게 작동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셈이다.

2) 포용과 배제의 코드

『행복의 동산』 수록 동화 가운데 의인법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은 민담 유형인 “행복의 열쇠” 단 한 편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셋째 옥이에게 은혜를 입은 학은 마치 인간처럼 보은의 행동을 두 번이나 보여준다. 나머지 작품들에서는 온갖 사물과 대상이 의인화된다. 우화에서 흔히 쓰이는 동물과 바다생물, 나무와 식물은 물론이고, 일월성신과 바람, 파도 등 자연계의 친근한 대상에게 사람의 인격이 부여된다. 나아가 연필과 각종 학용품, 구두, 악기, 편지, 문장부호, 귀속말 등 어린 인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로 확장되며, 심지어 세균, 각종 중장비, 공장의 연료와 원료 등 근대적 사물까지도 의인화된다. 이렇듯 의인화된 존재들은 ‘이야기세계’라는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 ‘여행’과 ‘모험’과 ‘변신’과 ‘잔치’를 벌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의인화 대상은 근대적 사물이다. 동식물과 일월성신 등 자연적 존재를 의인화하는 전통은 기원을 따질 수 없을 만큼

40) 『문학예술사전』, 513쪽.

오래다. 이러한 의인화 대상들은 신화학 등에서는 심원한 상징성을 지닌 원형(archetype)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근대적 사물들은 원형의 틀로 설명해내기 어렵다. 러시아 비평가 미하일 엡스타인(Mikhail Epstein)은 이 점에 착안하여 ‘키노타입(kenotyp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키노타입’은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이미지를 뜻한다. ‘키노타입’은 원형과는 다른 새로운 시공간의 창출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⁴¹⁾ 북한 동화 속 의인화된 근대적 사물과 그들의 ‘이야기세계’는 일종의 ‘키노타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²⁾

그러나 이들의 세계가 ‘아키타입’이나, ‘키노타입’이나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역할이다. 앞의 장에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 가운데서 첫 번째 유형에 등장하는 동식물과 사물들은 북한의 활력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존재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인격이 부여된 ‘동식물’ 혹은 ‘동식물’의 탈을 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유형의 ‘이야기세계’ 속에 사는 존재들은 전형적인 인물의 의인화일 수도 있고, 아동 독자들의 일부 성격의 전형화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귀가 큰 토끼”에서 주인공 토끼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현혹되어 이일 저일 관찮아 보이는 일에 기웃거린다. 처음엔 호박만한 감자농사를 짓겠다고 하다가 물고기잡가-달리기-산삼 캐기에 도전하지만 어느 일 하나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다. 이 토끼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형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41) 니콜라예바, 『용의 아이들』, 220~228쪽.

42)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가 아키타입이나 키노타입이나를 구별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듯하다. 하지만 이 작업은 방대하고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렇듯한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의 의인화이기도 하다.

“딱따구리의 빨간 모자”도 마찬가지다. 여기 등장하는 까막더구리는 자신의 업무를 태만히 하며 무사안일의 유혹에 넘어간 인물의 전형인 동시에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내면의 인격화라고 볼 수 있다. “되돌아온 오리”의 주인공 ‘줄베기’와 ‘알락이’도 공부는 뒷전이고 놀기만 하는 아동의 전형이자 자신도 그러고 싶은 아동의 내면에 이는 유혹이다. “물방울”의 주인공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큰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아동의 전형인 동시에 그러한 공명심의 인격화에 해당된다.⁴³⁾

한편, 앞 장에서 ‘꿈 크로노토프’로 간주한 네 편의 존재들은 이중적이기보다는 공포, 희망 등 감정의 외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꿈에서는 감정이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전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귀속말》”의 경우에는 ‘귀속말’을 이중적 존재로 볼 여지는 있으나, 자신의 내면 감정이라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동화 속 인물에 대해 독자가 갖게 되는 감정은 크게 나누어 선망과 동경, 동일시, 비난과 혐오라고 할 수 있다.⁴⁴⁾ 『행복의 동산』 수록 작품 속의 캐릭터 가운데 어떤 인물이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고, 어떤 인물이 동일시의 대상이며, 어떤 인물이 비난과 혐오의 대상인지는 명백하다. 부연하자면 주인공의 자질과 능력이 보통 인간보다 높을 경우 선망과 동경, 비슷할 경우 동일시, 낮을 경우 비난과 혐오의 대상

43) 이 같은 이중성의 논리는 모든 캐릭터에 다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전형적 인물에 가까운지 내면의 인격화에 가까운지는 구체적 작품마다 비중이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44) 박미정, “서사텍스트에서의 감정이입을 통한 자아형성 연구”(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0~21쪽.

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동화 ‘이야기세계’의 존재 가운데 가벼운 비난의 대상은 추방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주목된다. 예를 들어 “귀가 큰 토끼”나 “메토끼의 나팔주둥이”의 주인공들은 귀가 얇거나, 허풍이 센 인물들이어서 밋상스러운 비웃음을 사지만 추방되는 법은 없다. 다른 동물들이 짜고 메토끼의 입이 나팔주둥이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그를 깨우쳐주려고 한다. 즉 이들 주인공은 해학적 코미디의 주인공처럼 결국의 포용되는 캐릭터다. “빨난 너구리”처럼 남의 것만 좋다고 여기는 비주체적 캐릭터마저도 그 버릇을 고치기만 하면 포용된다.

반면 “겉과 속”의 독버섯들처럼 겉모양은 버섯이지만 해로운 것들이라고 처음부터 낙인이 찍힌 존재들은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존재다. 그들은 정체를 숨기고 ‘우리’의 겉에 있다. 특히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아닌 것이다. “딱따구리의 빨간 모자”의 까마귀 역시 ‘우리’ 밖의 존재로서, 언제든 우리 안으로 잠입해 들어와 못된 짓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캐릭터다.

이상의 논의가 함의하는 바는 『행복의 동산』 ‘이야기세계’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바로 ‘포용과 배제’의 코드라는 사실이다. 전형화이든, 내면의 외화이든, 『행복의 동산』에서 의인화된 존재는 아동 독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서사적 전략에 따라 ‘이야기세계’ 속에 배치된 존재들이다. ‘이야기세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코드화된 캐릭터는 본받아야 할 인물 또는 함양해야 할 내적 가치가 된다. 반면, 부정적인 코드를 할당받은 캐릭터들은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인물 혹은 아동 자신의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몰아내야 할 감정인 것이다.

3) 대가를 요구하는 이상향

『행복의 동산』 ‘이야기세계’를 관통하는 분위기는 ‘잔치’의 흥겨움이다. 잔치 분위기는 네 유형 모두에서 드러난다. ‘봄바람’이 목격한 1947년 무렵 ‘조선’의 이야기인 “큰 고간 속에 생긴 일”에서는 매일매일 커가는 고간 속의 각종 연료와 원료 포대들이 모여 흥겨운 회합을 한다. 이 회합 자체가 잔치이자 사물들의 카니발이다. 두 번째 유형인 “빨난 너구리”에서 잔치는 일상화된 동물동산의 분위기로 제시된다. 세 번째 유형인 “행복의 열쇠”에서는 금이 일행이 바다 건너 도착들로부터 ‘행복의 굴’ 열쇠를 빼앗아 돌아오자 모험의 과정에서 만났던 모든 인물들이 수레를 몰고 긴 행렬을 이루며 이 마을로 이주해 오는 카니발 분위기가 묘사된다. 마지막 유형인 “푸른 궁전의 선물”의 유실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잔치’는 곧 이상향의 염원을 상징한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화의 세계가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어린 독자는 이 유토피아 속에서 안정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 이들은 ‘현실세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야기세계’로 도피하기도 하고, ‘이야기세계’로부터 용기를 얻고 고무되기도 한다. 북한의 ‘당-작가’도 이러한 동화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어떤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앞 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특징은 ‘이상향’의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향’은 한편으로는 과거, 즉 되찾아야 할 실낙원이거나, 미래에 완성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 이곳의 삶은 ‘낙원’과 흡사하지만 잠

시라도 방심하다가는 이 행복을 잃을 수 있다. 현재 활기차게 건설 중인 ‘이상향’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며 자신의 분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쳐야만 달성될 미래인 것이다.

‘실낙원’의 모티프는 “행복의 열쇠”에 잘 나타나 있다. 새벽골이 못 살게 된 이유는 바다 건너 도적들이 행복의 굴을 폐쇄하고 열쇠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를 되찾아와야만 ‘이상향’이 실현될 수 있다. 금이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이를 되찾아 온다. 그리고 행복의 굴 안에서 발견한 그림책을 열자 새벽골이 그림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변한다. 하지만 ‘금이’는 이렇게 외친다. “여러분! 이제부터 『행복의 그림책』 둘째 권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들 일터로 나갑시다.”⁴⁵⁾

물론 ‘이상향’은 혁명적 낙관주의에 따라 반드시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전제된다. “열두 번 뜨는 해” “파도왕의 편지” “개구리박사의 여행”은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세계’를 그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잔치’ 분위기는 바로 혁명적 낙관주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떠돌아다니던 물음표”와 같은 회의주의자에게 발붙일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기러기”의 어린 기러기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무를 보호하면 모두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어린

45) 강효순, “행복의 열쇠,” 『행복의 동산』, 81쪽. 『행복의 그림책』, ‘첫째 권’이 해방을, ‘둘째 권’이 사회주의 건설을 상징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행복의 열쇠”와 같은 민담형 실낙원의 모티프는 1990년대부터 더욱 자주 발견된다. 일례로 2010년 김정일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속의 호랑이』는 “행복의 열쇠” 화소들을 장편으로 확장하여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그림속의 호랑이』(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갈매기”처럼 사나운 바람, 파도에 굴하지 않고 높이 나는 연습을 계속 하면 수평선 너머 ‘보물이 가득한 땅’에 이를 수 있다는 주제의 형상화도 선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론 결실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린 이야기도 거듭 되풀이된다. “겉과 속”의 ‘참나무버섯’처럼 좋은 버섯보다 더 화려한 외양을 한 독버섯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딱따구리의 빨간 모자” 속 ‘까막더구리’처럼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인민들로부터 배척될 수도 있다. “제일 큰 나팔”처럼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우쭐거려서는 이상향 건설의 방해꾼이 될 뿐이며, “이상한 《귀속말》”의 자기합리화 유혹에 넘어가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동화의 이상향 염원에서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능동성의 강조다. 서양 동화나 남쪽 동화의 경우 ‘뜻밖의 행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에게 의외의 기적적 행운이 찾아와 어려움을 해결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뜻밖의 행운’이야말로 동화를 동화답게 해 주는 요소다. 하지만 북한 동화에서는 ‘뜻밖의 행운’이 반드시 주인공의 능동적 노력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능동적 노력이야말로 ‘실락원’을 원상으로 되돌려주는 동력이며, 지금까지의 성취를 지켜낼 수 있는 근원이라는 함의가 여기에 깔려 있다. 주체적으로 노력할 때 북이 ‘차례진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행복의 동산』 ‘이야기세계’에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도 등장한다. 호박만한 감자, 밤에도 볼 수 있는 안경, 흔들기만 해도 말 탄 용사가 쏟아져 나오는 망치, 화수분이자 놀부의 박과 같은 청동항아리, 학용품과 공산품이 열리는 과일나무, 어떤 파도도 이기는 ‘황금파도’ 등등이 그런 존재들이다. 이들 사물은 이상향의 염원이 투

사된 대상이다. 그런데, 이들 기적적 형상 역시 ‘하늘’에서 주어지는 의외의 ‘행운’만은 아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마치 그 노력의 대가처럼 주어지는 ‘행운’이다. 이렇듯 ‘뜻밖의 행운’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이유는 동화 역시 계급성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상이 사람들에게 인간과 생활의 본질을 옳게 리해시키는 수단으로 되자면 그것이 로동계급의 리익의 견지에서 씌여지는 경우여야만 가능하다.”⁴⁶⁾ 특히 『행복의 동산』에 수록된 1947~1970년대 말 동화는 이 원칙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더 지적해두어야 할 특징이 있다. 『행복의 동산』이라는 타 이틀 자체가 ‘사회주의 낙원 조선’을 은유한다는 점은 부언이 필요치 않다. 그런데, 이 ‘낙원’은 감탄의 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낙원’이라고 자족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낙원’이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의인화된 ‘동식물’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그들의 시선으로 ‘조국 천리마나라’에 감탄하게 하는 유형은 바로 투사된 ‘감탄의 시선’이다.

물론 이 유형은 아동 독자의 시선을 초점자인 ‘동식물’에 고정시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이야기 장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자인 스토리텔러가 직접 초점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의 초점자를 설정한 것에서 ‘감탄의 시선’을 염원하는 심리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지 않는 “메토끼의 나팔주둥이”에서도 이런 염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 ‘메토끼’는 자신의 분공을 모두 실패하고 난 뒤 ‘외국 손님’을 안내하여 동물동산의 발전

46) 정룡진, 『아동문학』, 70쪽.

상을 자랑하는 데 앞장선다. 동물동산조차 이처럼 찬탄을 금치 못하는 ‘외국 손님’의 눈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북한 동화의 ‘이상향을 향한 염원’이 아동 독자의 심성에 어떤 공명을 일으켰는지는 확실히 알아낼 방도가 없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이 전하는 흥미와 감동을 통해 이 염원이 아동 독자의 심성에 각인되었다면,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작가’는 바로 이에 착안하여 아동들을 동화 속 ‘이상낙원’ 건설의 주체로 호명하는 목소리에 언제나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작가’가 동화의 ‘이야기세계’를 치밀하게 구성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5. 나오며

북한 동화는 북한 문화의 기본코드를 연구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어린 인민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는 공식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교육체제의 단일한 학제를 고려할 때 모든 아동은 같은 동화를 듣고 자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화의 서사는 이후 모든 서사 학습의 기초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아동의 정체성과 가치관, 정서와 감정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북한에서 동화는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다른 문예 서사와는 달리 ‘환상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풍부한 함의를 읽어낼 수 있는 연구대상이다.

이 연구는 북한 동화의 이러한 측면에 착안하여 그 ‘이야기세계’를 고찰해보았다. 그러나 무의식 세계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

기세계’ 전반에 대한 분석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 질문을 통해 ‘이야기세계’의 기본적인 특성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첫째, 북한 동화는 어떤 ‘시공간’에서 펼쳐지는가. 둘째,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에는 어떤 존재들이 사는가. 셋째,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에서 초자연적인 마법적 현상은 어떤 계기에 등장하며, 거기에 투사된 염원은 무엇인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47~1970년대 말 사이에 발표된 북한의 대표적 동화 28편을 수록한 동화집 『행복의 동산』을 분석하여 네 가지 유형의 ‘이야기세계’를 구분했다. 첫째, 의인화된 ‘동식물’의 시선을 통해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유형, 둘째, 의인화된 ‘동식물’의 세계에 가탁해 현실세계의 문제들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는 유형, 셋째, 민담의 ‘이야기세계’를 계승한 유형, 넷째, 꿈 혹은 기이한 경험의 세계를 다루는 유형.

이들 각 유형은 흥미 유발을 통해 어린 인민들을 ‘이야기세계’ 속으로 ‘이동’시키는바 이는 서사적 입문의례 시공간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 인민들이 스토리텔러의 목소리를 따라 그 ‘시공간’을 여행토록하면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 ‘조국’ 수호 의지,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 노동의 소중함 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들 동화 시공간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시공간으로의 여행’을 고찰해본 결과 『행복의 동산』의 ‘이야기세계’, 나아가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읽어낼 수 있었다. 첫째, 북한 동화의 ‘시공간’과 ‘현실세계’ 간의 거리는 서구적 동화 서사의 관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는 외형적으로 매우 다른 ‘시공간’으로 표상될 경우에도 현실 주변을 맴돌거나 현실의 알레고리라는 사

실이 쉽게 드러난다. 둘째, 북한 동화의 ‘이야기세계’를 작동시키는 가장 주요한 코드로서 ‘포용과 배제’의 코드를 들 수 있다. 물론 보편적 동화의 ‘이야기세계’ 역시 아동 독자가 동경하거나, 동일시하거나, 혐오하는 대상을 통해 아동에게 선/악, 미/추, 의/불의의 코드를 심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동화에서는 포용되는 캐릭터와 추방되는 캐릭터를 선명하게 구분하기 위해 ‘이야기세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행복의 동산』의 ‘이야기세계’는 활발하게 건설 중인 ‘사회주의 지상낙원’이지만 그들의 ‘이상향’은 다시 회복시켜야 할 ‘실낙원’이거나 반드시 완성해 나가야 할 미래로 제시된다. 또한 이를 위해 능동적 노력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흥겨운 ‘잔치’의 모티프를 통해 ‘혁명적 낙관주의’를 고취하는 한편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만 동화와도 같은 ‘뜻밖의 행운’이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동화가 함축하고 있는 북한 문화의 코드를 더욱 총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동화집 한 권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동화 텍스트를 통사적으로 풍부하게 분석하는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들려주었다는 ‘본보기동화’ 텍스트를 깊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화의 ‘이야기세계’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플롯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북한 문화의 기본코드와 그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차후 과제다.

■ 접수: 10월 31일 / 수정: 11월 21일 / 채택: 11월 28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당의 해빛 아래 꽃피는 아동문학: 잡지 『아동문학』 400호를 내면서,” 『아동문학』, 8호(1988).

강훈 외, 『행복의 동산: 조선아동문학문고 4』(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그림속의 호랑이』(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리성칠 외, 『불꽃훈장: 조선아동문학문고 9』(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리원우, 『아동 문학 창작의 길』(평양: 국립출판사, 1956).

정룡진, 『아동문학: 주체문학전서 6』(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황령아 외, 『웃음의 동산: 조선아동문학문고 10』(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아동문학』

2. 국내 자료

박혜숙, “개화기 교과서의 이솝우화와 한국 동화의 성립과정,” 박혜숙 외, 『동화의 형성과 구조-한국에서 창작동화가 성립되기까지』(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서동수,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제9집(2005).

선안나, “1950년대 북한 아동문학의 현황(1): 서정 및 서사 장르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제15집(2008).

오영은·김영주, “남북한 전래동화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와 배경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1호(2007).

원종찬, “북한 아동문단 성립기의 ‘아동문화사 사건,’” 『동화와 번역』, 제20집(2010).

- 이영미, “북한 아동문학과 교육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0집(2006).
- _____, “1960년대 전반기 북한 문학교육교양 매체 『아동문학』의 주제적 경향,” 『한민족문화연구』, 제23집(2010).
- 이재철, “북한아동문학연구: 그 총체적 접근을 위한 시론,” 『남북아동문학연구』(서울: 박이정, 2007).
- 이재철, “남북 동화문학 비교 연구: 아동문학사를 위한 동질성 모색,” 『남북아동문학연구』(서울: 박이정, 2007).
- 박미정, “서사텍스트에서의 감정이입을 통한 자아형성 연구”(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명희, “한국 동화의 환상성 연구: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파주: 창비, 2010).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 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서울: 소명출판, 2009).
-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이야기의 본질과 활용』(파주: 한울, 2011).
- 니콜라예바, 마리아, 『용의 아이들: 아동 문학 이론의 새로운 지평』, 김서정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 _____,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조희숙 외 옮김(파주: 교문사, 2009).
- 애벗, H. 포터, 『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우찬제 외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 자이프스, 잭, 『동화의 정체: 문명화의 도구인가 전복의 상상인가』, 김정아 옮김(파주: 문학동네, 2008).

A Study on ‘World of Story’
in North Korean Tales:
Centering on a Collection of Fairy Tales
Garden of Happiness

Yang Hun-do(Humanitas College of Kyung Hee University)

A fairy tale in North Korea is a genre of children’s literature of having ‘fantasy’ as the essence. North Korea’s children proceed with growing as ‘the people’ while facing ‘world of story’ in a fairy tale, which meets with unconsciousness like children in other cultural area. North Korean tale is nonpolitical in a sense of being not directly revealed the thought and ideology in a system, but can be said to be buried the basic codes such as world view, feeling & emotion, and value, which become the foundation in ideology of system, in the background. Accordingly, ‘world of story’ in North Korean tale is the subject proper for deeply researching into North Korea’s cultural code. This study considered the basic code and its implication in North Korean tale by analyzing ‘world of story’ in 『Garden of Happiness』, which is the

collection of fairy tales of having recorded 28 representative pieces of fairy tales, which were released in North Korea from 1947 to 1980.

The works, which were recorded in 『Garden of Happiness』, can be divided into ‘world of story’ in four types according to orientation of narrative ‘voice.’ First, it is a type of showing the developmental image of ‘Joseon’ with the eyes of the personified animals and plants. Second, it is a type of giving allegorical lesson. Third, it is a type of having succeeded to the world view in the traditional folk tale. Fourth, it is a type of utilizing ‘space time in dream.’ ‘World of story’ in each is narrative device in order to infuse pride of the fatherland into child readers, love for group and friend, and intention toward ideal society by allowing diverse personified existences to be knotty from animals & plants to modern objects.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is narrative device,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read out. First, ‘world of story’ in North Korean tales needs to be developed under the close relationship with ‘realistic world.’ This leads to guessing the limitation of imagination that a system allows. Second, ‘world of story’ in North Korean tales clearly distinguishes the existences of living inside it into the existence, which will need to be embraced, and the existence, which will need to be excluded. In other words, the code of inclusion and exclusion can be said to be the basic operating principle in ‘world of story.’ Third, ‘world of story’ is directly the distance toward ‘utopia.’ A subjective and positive effort needs to be certainly preceded in order to reach there. The message is being buried in the background as saying that the

tale-based luck will be followed only when being that time.

Keywords: North Korean fairy tales, fantasy, world of story, storytelling